

사설

정신황폐가 낳은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위험 수위가 상상 이상이라 한다. 학교는 통제와 교화를 포개까지 이르렀다. 학교도 하나의 사회인 바에야 법규의 합리적 교환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서도 권력과 지배는 일상적이다. 다만 학부모들이 순진하게 그 사회를 지배하는 코드가 모종의 평등이거나 혹은 성적순이기를 기대할 뿐이다. 앞의 나이브한 낙관도 문제이지만 뒤의 성적순의 프레스티지 또한 폭력을 진작시키는 한 '불합리'라는 사실을 다들 간과하고 있다.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잘난 체'를 못보아 준다고 항변한다. 나아가 자기보다 나은 자, 저보다 잘 생기고 웃 잘입는 아이를 또한 '응징'의 대상으로 찍는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적나라한 '깡'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를 통해 부당함(?) 권력의 교환에 불복하고 저항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범죄의식이 없다. 인터뷰에도 당당히 응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이 대목을 주의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은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사회악이니 뿌리부터 잘라야 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 또한 부당한 권력 교환의 희생자들이다. 그 시스템은 '우리' 어른들이 숙세(宿世)에 걸려 만든 것이다. 아이들은 그 업(業)의 과보로 부당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 운회(輪廻)의 시스템이 정화되고 건강해지기까지 학교폭력의 위험은 엄존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 현상을 응제하거나 혹은 강제적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근본 치유는 아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緣起法)의 소익익을 다들 버락

치트 알아야 한다. 근본병인은 우리의 탐욕과 노함과 여러식음에 있다. 삼독(三毒)이라 한다. 그 깊은 뜻을 이제 조금씩 짚아본다. 사회는 보다 나은 지위와 권력을 위한 총동(貪)으로 인한 끝없는 투쟁, 그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한(恨)의 무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을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다(覺)는 데 있다. 근대에 들어 이 경향은 보다 적나라해지고 치열해졌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이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도구적 인간의 양상이라는 교육의 이념이 자리잡으면서 출세와 성적의 물신(物神)이 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꿈과 정서를 잃었고 타인의 배려와 자율적 규율이라는 인문적 교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 세간(世間) 너머의 법을 가르쳐야 한다. 종교는 인간의 영원의 꿈이 담겨있는 곳이다. 논리적 사유와 합계 논리적 사유, 과학적 사유와 더불어 종교적 사유를 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현대 불교는 청소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들었다. 거기서 복잡한 불교형이상학을 전파하려 노력하지 말고 담담하고 싶다. 무엇보다 기초적인 예불과 공양을 통한 일상적 두타의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힘과 인간 정신의 깊이에 대한 외경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적과 합리와 생산의 거울로 비추기에는 법계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마침 불교계는 내년을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교화와 포교에 주력한다. 그 성과에 자못 기대를 건다.

열린 마당

예언·점술

사회가 어수선하거나 국가 대사를 앞둔 때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최근 심모라는 무당의 국가대사 예언이 적중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 무당의 책이 베스트 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고 임시·승진·선거철이면 유난히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불안할수록 참회정진... 운명 스스로 개척

혜 관 <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에서 불자들에게 세속의 주술을 행하지 말라고 말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은 "올바른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김홍파워난 관계가 없다. 그러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진정한 것을 놓치게 마련이요, 미혹의 어둠속으로 던져져 그 나라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했다.

입시철이면 지식의 합격을 점치는 부모, 자신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점괘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불자들 사이에 많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제자들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법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는데도 말이다.

모든 세상만사에는 우연과 필연이 있고, 그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혼란한 사회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기도와 참회 정진하여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하나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동서고금의 성현들은 공연한 일을 해낸 꼴이 되는 것이 아닐까.

불자들은 자기들의 참 주인인 불성(佛性)이 점괘의 점괘보다 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운명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 사고력 부족할때 마음을 구속

한 정 섭 <한국불교교회원 이사장>

점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자연의 원리와 초인간적 존재와의 접촉이 의하여 시간적인 존재와 공간적인 존재를 예측하는 점학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나 운명론적인 사상에 빠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

"당신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그날 그때가 지나갈 때 까지는 실사 액막이를 하듯 대충대충 불안 초조한 생활을 면할 수 없다. 사상이 시끄러울수록 이러한 험담과 비평, 도합사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음양행의 기운이 우주 인생의 삶을 지배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운명이 더욱 극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지극히 깨닫고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인생은 누구나 두번 죽지 않는다. 살았을 때 이 몸으로 착한 일 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마뱀이 하루에 일곱 번 변하는 이치를 보고 주역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주역을 보고 깨닫고 아는 자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점과 다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의미있게 만들어 가도록 자신을 다듬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것이다.

요즘 전극적으로 점박이 성행하고 예언서 베스트 셀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역사적으로 세상이 어지럽거나 왕조가 망할 무렵에는 반드시 점박과 주술이 성행하고 이단종교가 위세를 떨치곤 하였다.

비자금과 5·18 수사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세도와 부를 누리던 과거의 실세들이 밤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부도로 쓰러진다. 북한은 경제가 회복될 능태인데다 수해로 인해 기아상태의 주민이 수십만에 이른다 하고 휴전선의 병력증강 배치로 전쟁위험까지 보도되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점을 치는 심리는 무엇인가? 인류가 가장 먼저 개발한 도구 중의 하나가 점치는 도구였을 것이다. 고대로부터 무덤이나 제사장이 분토지를 결해왔고 제정이 불리된 이후에도 불행행위의 일환으로 점박이나 예언을 참고한 기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언제 점을 치고자 하는가.

다는 경전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불안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은 존재의 상실, 파과를 뜻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일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붓다께서 가르쳐주시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지식을 잃고 실성하다시피 된 예언이 붓다께 지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붓다는 3대째 죽지 않은 집의 거저씨를 몇달 구해오면 그대의 지식을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결국 그 예언은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아이를 기적으로 소생시켰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진정한 해결책인가. 붓다는 신통력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깨달도록 하셨습니다. 정신의학적 측면으로 보면 붓다의 처방은 직접적이고 이성적이며 근원적 처방이고 예수의 처방은 타락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일시적 처방이다.

불안이나 불행은 해결하고 자 점을 치고 고통을 하는 위는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



최 훈 동 전문가 진단

그늘진 사회서 자라는 독버섯

불안할 때이다. 왜 불안한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 현재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불안하다. 그래서 알고자 하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무당이나 역술인을 찾는다. 점을 보면 일거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과 이성의 힘만으로 알 수 없고 권력이나 재산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곳이 바로 종교가 시작하는 곳이며 또한 점박이 근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새겨줄을 보고 뱀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퇴짜를 맞은 사람이 낮에 가서 새겨 줄인 줄 알고는 아무 두려움 없이 길을 갔

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탐 홀리지 않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한방주의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점박이나 예언 그리고 이단종교들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버섯과 같다. 사회가 성숙하고 밝은 민주사회가 아직 되지 못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명진보가 아직까지도 아직 진정한 민주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지리라는 인식과 온 국민이 다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점박은 빛을 잃을 것이다. <백산신경정신과 원장>

길흉화복 자기 의지따라 오고 가는 것

맹 란 자 <수필가>

만물에는 성주과공과 길흉성쇠와 진퇴존망의 법칙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吉(進·存)함만 좋아하고凶(退·亡)은 싫어한다. 어찌 열을 붉은 꽃과 기를 지 않는 달이 있으랴. "수시로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역(易)이라 하니 한번은 양지가 되고, 한번은 음지가 되는 게 주역의 이치이다. 이에 성현들은 중(中)재(中)재(中)나 성(盛)한 때를 조심하라 이르며 불우한 때에는 회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한다. 그들달이 만물을 향해 거듯 그 비색(否塞)함이 어찌 오래 갈까보나(否終則傾)하고. 그러니 회비란 낙담과 비신을 파는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 아닌가.

어느날 소강철선생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입니까?" "남이 나를 일그러지게 후(虧)하는 것이 복이 되고, 내가 남을 일그러지게 하면 화가

된다"고 답했다. 다산이나 퇴계는 역(易)에 능하면서도 점을 치지 않았다. 역이 가르치는 그 가이화(卦)를 따르면서 이(理)와 도를 숭상할뿐, 상수(象數)의 말단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자는 '역은 복서'라고 하였다. '절'이란 '이' 연속되는 시간과 '이' 시간상에서 취해진 어느 한순간에 '이'가 판단해내는 것을 말한다. 문복자(問卜)와 작괘(作卦)와 점단(占斷)의 그 시기가 일치되어 하나의 상징적 부호인 '卦'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암시에 따른 해석이 중요한데 거거야말로 해석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활용은 '자성(自省)적인 사람만이 비신(疑)은 도음이 되는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역은 깊은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자신이 누구인가를 참구해 들어가 선의 세계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해할 목적이나 부정한 일에 관해 점치면 일러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대만평



언제쯤 녹을지...

사주·관상통한 신도교화등 구태벗어야

윤 재 승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느 서점이든 가보면 거의가 다 불교서적 코너에 역술서를 꽂아 놓고 있다. 율해도 역술신이라 1백여종이나 나왔다 한다. 이렇게 역술서가 불교서적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오랜 전통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역사 이래 불교는 상당부분 역술과 호흡을 같이 해 왔다. 도선의 비보사상도 그 원인이야 어떻든 이런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했고, 그 뒤로도 많은 스님들이 사주나 관상등 역술을 신도 교화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물론 그것이 교화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면 딱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불법 흥조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다면 거기서 파생하는 오해

의 소지 같은 것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결국 우리 불교계에서부터 역술을 끌어냈고 평의상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불교와 역술을 뒤범벅시켜서 결국 대중들로 하여금 혼동케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불교인들에게 있다고 필자는 본다.

지금도 주지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종단의 공인된 점을 갖고 있는 보살들 중에서 역술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각성해야 할 일이다.

시대가 흥할수록 역술은 호황을 맞이한다. 어쩌면 시대를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교와 역술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집단에서 역술 따위가 행해져서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러운 노릇이 아니겠는가.

국민여러분과 2천만 불자에게 드리는 말씀

—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중유의 새끼에 문화유산 등록을 경하하며 —

지난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요 쾌거입니다. 특히 이 나라가 과거의 정치적·경제적인 잘못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자긍심이 손상 당하고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시국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즈음에 접한 남보이기에 척박한 사막에서 감로수를 만난 것 같은 뜻깊은 민족적 경사인 것입니다.

이번 세계 문화유산 등록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나라가 수많은 국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 꽃피워 내고 보존하여 왔던 문화민족으로서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산에는 조상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으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불교적 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대표적 문화유산이 이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불교인만의 자부나 긍지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기쁨이기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고대로 내려오는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삶의 저변에서 함께 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이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들은 단순한 예술적 조각이거나 건축물이 아닌 조상들의 민족적 비전과 신앙의 가혹한 정성이 녹아 내려 있는 민족 의식의 결정체입니다. 그 비전은 다름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바램은 불교의 사상과 신앙으로 정립되어 이 땅의 문화와 도덕의 기초가 되었으며, 불교 문화는 마침내 민족의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문화유산도 그 예술적 가치나 과학적 우수성은 물론 민족의 생활 문화와 하나된 불교의 신앙성과 사상성을 담고 있기에 더욱 존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의 비전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부나 긍지를 안겨 주고 나아가 새로운 힘을 길러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 땅에 이상사화된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호도적 발상에서 창건되었으며, 그 호국적 발상은 불교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의 가람 배치와 조형의 특출한 예술적 성취는 말할 것도 없으며, 석굴암의 본존불과 보살상은 속세의 감정과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현없이 위대하고 자비로운 자태로서 세계적인 불가사의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의 결정체인 팔만대장경은 8만 개가 넘는 경판과 6천만 자가 넘는 천문학적 글자 수에도 불구하고 오자나 낙자 없이 정교하고도 예술적 수준이 뛰어난 서적으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민족 출판 문화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판을 보존하고 있는 장경각의 구조와 배치는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로도 넘지 못하는 고도의 건축 기법으로서 습기와 온도, 풍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여 대장경을 오늘날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이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 사회의 발달과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가치관이 전도되고 심성이 황폐화되어 가는 오늘날, 조상들의 비전과 삶이 녹아 있는 전통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렇듯 옛 선현들의 정성과 공덕이 후세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 대상 하나 하나에도 소용함이 없었던 문화유산들을 통해 오늘날 황폐해진 도덕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바른 삶을 지향하도록 하려는 조상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새삼 절감합니다.

근래 들어 우리의 문화재 및 자연 유산은 자연 풍화에 의한 자연적 손상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한 인위적 유실과 손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존과 관

리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홍보는 물론 관리 및 보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문화유산이 어느 나라에 속하든 지간에 세계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문화재 및 자연의 유산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 인류를 위한 세계의 유산의 일부로써 보존하여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산의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 주어진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할 정신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급격한 변화와 진보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 현상도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질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이기적 탐욕은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소외, 도덕적 타락과 범죄의 만연으로 이어져 세계적 차원의 두만 경쟁 시대와 함께 '집단지이기주의'가 되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각종 병리 현상을 타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보편화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두드물물 녹아 있는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비전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들을 통해 선현들의 경건한 삶을 느끼고 나와 자연, 세계가 하나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는 다툼과 분쟁을 종식하고 인도주의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참다운 생명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문명의 보편적 가치 형태는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은 국민의 성원 속에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그리고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을 다시 한 번 경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 선양하여 문화민족으로서 21세기 인류의 문명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39년(1995년) 1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합장